

<아라베스크 1번>

1. 제목 : <아라베스크 1번>
2. 양식 : 단편 극영화 / 컬러
3. 화면비 : 2.35 : 1
4. 장르 : 드라마, 음악
5. 러닝타임 : 15-20min

6. 로그라인

피아노라는 꿈을 포기하고 인테리어 작업장에서 일을 하는 현재는 어느날 작업장 근처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를 쫓다 혜연을 마주하게 되고, 점점 빠져들어간다.

7. 기획의도

한사람이 꿈을 가지고 삶을 정진할 때 비로소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느낀다. 만약 이러한 꿈을 잃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던 삶의 곳곳에서 불현듯 떠오르고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

8. 연출의도

꿈속에 있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싶다. 꿈이라는 것은 자면서 꾸는 환상도 되지만 삶의 목표라는 뜻도 된다. 이러한 아이러니를 극중에 녹여내고 싶다. 현재에게 불현듯 보이게 되는 혜연을 현재가 이루고자 했던 꿈을 상징하는 메타포로 나타내고 싶다.

혜연이라는 캐릭터를 의도적으로 평면적으로 묘사하면서 실제하는 인물인지 환상속의 인물인지 관객으로 하여금 다소 모호한 느낌을 유도하고 싶다. 혜연이라는 캐릭터는 결국 현재의 꿈을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트라우마로 인해 피아노라는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다시 한번 피아노를 마주하는 장면을 영화에 담아내 관객으로 하여금 본인의 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고싶다.

늘 혜연의 연주를 바라보는 현재는 어쩌면 혜연에게 있어 하나의 관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가 후반부 혜연의 공간으로 들어가고, 혜연의 자리에서 연주를 하므로써 자연스럽게 현재가 관객의 입장에서 무대에 오른 느낌을 주어 극복 할것이다라는 느낌을 주고 싶다.

9. 주제

트라우마로 인해 꿈을 포기했더라도, 다시한번 꿈을 마주하고 정진할 수 있다.

10. 캐릭터 설정

현재 : 20대 중반으로 다소 의기소침한 성격이다. 과거 고등학교 때까지 피아노 전공을 꿈꿨지만 극심한 무대공포증으로 그만 두고 지금은 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피아노 전공을 포기하고 입시를 실패 한 후 대학에 가지 않고 생계를 위해 공사장 및 작업장에서 줄곧 일을 해왔다. 과거 무대 공포증의 영향으로 다소 사람을 기피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 아직까지 피아노에 대한 꿈을 버리지 못한 채 삶을 이어가고 있다. 피아노를 치던 시절 드뷔시를 가장 즐겨 연주했으며 가장 동경했다. 가장 즐겨 연주했던 곡은 아라베스크 1번이다.

혜연 : 아름다운 외모를 지니고 있으며, 현재가 일하는 작업장 근처에 거주중이다. 피아노와 드뷔시를 좋아하며 현재의 이상향과 꿈을 상징하는 메타포적인 인물이다.

반장 : 다소 까칠한 성격이며, 인테리어 시공 사무소를 운영하고있다. 정욱과 막내, 현재를 데리고 일을 다니며 가르치고 있고 오랜 작업으로 본인이 숙련자라는 자부심이 있다. 항상 작업장에서 걸도는 현재를 탐탁지 않게 여기며 답답하고 한심하게 여긴다.

시나리오

S#1 작업장 (낮/내부)

M.S 짐벌 백 팔로우) 어느 작업장. 천천히 걸어 들어가는 현재 앞으로 동료들이 들어가며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두리번거리며 이곳저곳 살펴보는 현재와 동료들.

F.S 문 기준 정방향) 큰 방 내부. 정면에 문이 보인다.
동료들이 문으로 들어온다. 들어오자마자 이곳저곳으로 향해 내부를 살펴보는 동료들.
현재가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다. 이내 문 입구쪽에 멈춰서는 현재. 입구에 기댄다.

반장

영망이구만~

정욱

여기.. 진짜 다시 쓰대요..?

반장

하아.. 바닥 먼저 하고, 페인트칠부터 다시 들어가야겠는데?

막내

꽤 귀찮아지겠는데요, 가구도 다 빼야하고..

M.S 약측) 현재가 관심이 없는 듯 문에 기대 대강 주위를 훑어본다. 이내 문 밖으로 나가는 현재.

Cut to

C.U) 작업장 복도. 걸어오며 바닥에 쓰레기를 툭 차는 현재의 발.

W.S 짐벌 정면 팔로우) 현재가 시선을 아래로 깔고 바닥에 물건들을 차며 걷는다. 그때 어디선가 잠시 피아노 소리가 들려온다. 행동을 멈추고 서서히 고개를 드는 현재. 피아노 소리가 한번 더 울려퍼진다. 놀라며 고개를 빠르게 뒤로 돌리는 현재.

H.H / 약측) 살짝 떨리는 듯 천천히 내쉬는 현재의 숨소리. 고개를 뒤로 돌린 채 불안한 듯 인상을 쓴 현재의 표정이 보인다. 이내 피아노 소리가 다시 울려퍼지자 소리를 찾으러 나서는 현재 프레임 아웃. 아라베스크 1번의 도입부가 울려퍼진다.

점프컷)

H.H / M.S 백 팔로우) 작은 방으로 들어가며 두리번 거리는 현재.

H.H / B.S 측면) 다른방 창문을 열어보며 소리의 행방을 찾는듯 두리번 거린다. 불안한 숨소리가 살짝씩 들린다.

H.H / M.S 정면 팔로우) 복도. 현재가 소리를 찾는 듯 두리번거리며 걸어간다. 이내 연주 소리가 끊기고 현재가 서서히 걸음을 멈춘다. 조금 불안한 듯 떨리는 현재의 숨소리. (풀샷으로 카메라 빠짐)

<아라베스크 1번>

S#2 작업장 (낮/복도)

Ins) 줄자를 뽑아 바닥 길이를 측정하는 모습. 페인트 통에 레미탈을 붓고, 물을 붓는 모습

Cut to

W.S 짐벌 백 팔로우) 작업장 복도. 반장이 내리치는 고무 망치소리와 작업 소음들이 울려퍼진다. 거친 숨을 내쉬며 바닥 타일을 옮기고 있는 현재의 뒷모습이 보인다. 이내 현재가 넘어지고 타일들이 앞으로 쏟아진다.

F.S) 복도에 넘어진 현재. 이내 소리를 들은 듯 문 밖으로 뛰쳐나오는 반장과 정욱. 문 앞에 서서 넘어진 현재를 내려다본다.

M.S) 탄식을 하며 무릎을 잡는 반장의 모습과 차가운 시선의 정욱.

반장
아이씨...

B.S / 약간 하이 약측) 넘어진 자세로 상체만 일어난 현재가 거친 숨소리를 내쉬며 고개를 숙인다.

Ins)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깨진 타일들의 모습.

S#3 작업장 (낮/내부)

Ins) 바닥에 쓰레기들을 치우는 빗자루의 움직임.

F.S) 복도에 서서 빗자루질을 하는 현재의 모습. 현재가 본인이 넘어졌던 장소에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다. 망치질 소리와 공사 소음들이 들린다.

반장
(V.O 한숨을 쉬며) 하아.. 야 여기까지만 하고 밥먹고와서 하자.

대답하는 막내와 정욱. 반장과 정욱이 하나 둘 씩 문에서 나와 복도를 나간다.

M.S 이전과 같은 각) 빗자루를 쫓채 동료들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현재. 마지막으로 나온 막내가 나가는 듯 하다가 뒤를 돌며 현재에게 말을 건다.

막내
같이 가실래요?

현재
어... 아니.

떨떠름한 현재의 대답에 막내가 머쓱한듯 작업장을 나간다.

S#4 작업장 내부 (낮)

Ins) 앉아 있는 현재 옆에 삼각김밥 쓰레기와 검은색 봉투, 음료수 캔이 보인다. 삼각김밥을 먹는 소리가 들린다.

와이드한 F.S 약 좌측) 작업장 중앙에 홀로 앉아 삼각김밥을 먹는 현재의 모습. 이내 다 먹은듯 김밥을 검은색 봉투 안으로 집어넣고 음료를 마시는 현재.

M.S 약 우측 / 로우) 시선을 아래로 내리고 한숨을 쉬며 이어폰을 귀에 꽂는 현재. 그때 어디선가 또 다시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진다. 울려 퍼지는 아라베스크 1번. 소리에 집중하는 듯 이어폰 한 쪽을 귀에서 빼는 현재. 이내 시선을 앞으로 향하더니 이어폰을 완전히 빼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F.O)

Cut to

F.S) 작업장 복도. 어디선가 아라베스크 1번의 연주소리가 들려온다. 이내 현재가 문으로 고개를 내밀며 걸어가는 뒷모습.

M.S 짐벌 정면 팔로우) 복도를 나와 창가로 향하는 현재의 모습. 어딘가 상기된 표정이다. 소리가 점점 선명해진다.

H.H / 타이트한 B.S 우측) 어느 창가. 현재가 좌측에서 프레임 인. 이내 창문을 열고 창문 바깥을 바라본다. 전보다 선명해진 피아노 연주소리.

Cut to

H.H / L.S 측) 창밖으로 보이는 어느 집에 피아노를 연주하는 혜연이 보인다.

M.S 측) 연주에 집중하며 피아노를 치는 혜연의 모습이 빛난다.

Cut to

H.H / C.U 우측) 현재의 눈이 커진다.

교차편집 / 피아노를 연주하는 과거 현재 O.S) 아라베스크 1번이라고 쓰여있는 악보가 보인다.

M.S 측) 과거 피아노를 연주하는 현재의 모습. 교복을 입고있다.

매치컷 / M.S 측) 연주에 집중하며 피아노를 치는 혜연의 모습이 빛난다.

H.H / C.U 우측) 창가를 바라보는 현재의 눈가.

이후 아라베스크의 전주가 끝난다.

S#5 현재의 집 (저녁)

Ins) 현재의 집안. 창문이 열려있는 듯 도시 소음들이 들리고,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린다. 책장에 꽂혀있는 여러 피아노 서적들과 LP앨범들의 모습이 보인다. 벽에는 피아노 포스터가 붙여져 있다.

F.S 정면) 다소 너저분한 집안. 현재가 현관을 열고 들어온다.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온다.

M.S 약좌측) 열려있는 창문. 우측에서 현재 프레임 인. 창밖을 응시하다 창문을 닫는 현재.

직부감 / B.S) 침대의 모습. 이내 현재가 프레임 인 하고 침대에 눕는다.

Cut to

W.S 측면) 피아노를 연주하는 혜연의 모습.

Cut to

직부감 / 타이트 B.S) 침대에 누워있는 현재의 얼굴. 이내 눈을 감는다.

Sound in) 현재가 연주하는 아라베스크 1번

S#6 공연장 (꿈속)

F.S 정면기준 약 측면 살짝 하이) 공연장에 앉아 피아노를 연주하는 현재의 모습.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다. 아라베스크 1번의 2악장을 연주한다.

C.U 측면) 피아노를 연주하는 현재의 손.

M.S 측면) 연주를 하는 현재 측면. 이내 공연장 불이 켜지고, 연주하는 현재 너머로 객석의 관중들이 보인다. 두리번 거리다 객석으로 시선을 옮기는 현재. 그리고 객석을 발견하자 연주를 멈춘다.

Cut to

F.S / 패닝) 객석에 앉아있는 관중들의 냉소적인 표정들.

C.U / 측면 살짝 하이) 심사위원이라고 쓰여있는 테이블 위 볼펜을 굴리는 심사위원들의 손이 보인다.

Cut to

C.U 측) 건반 위 떨리는 현재의 손.

B.S 정면) 불안한 듯 땀을 흘리며 불안정한 호흡을 하는 현재.

교차편집) 객석에 앉은 관객들의 얼굴, 심사위원들의 표정과 현재의 얼굴.

S#7 현재의 집 (아침)

직부감 F.S) 현재가 침대에 누워있다. 감았던 눈을 크게 뜨고 거친 숨을 내쉬며 일어나는 현재.

M.S 측) 벌떡 침대에서 일어나 앉는다. 일어나 앉은 현재 너머로 피아노 포스터가 보인다.

S#8 작업장 내부 (낮)

Ins) 여러 쓰레기와 돌조각, 깨진 벽돌들을 포대에 담은 손동작. 고무 망치질 소리가 들려온다.

F.S 약측) 현재가 포대에 작업 쓰레기를 담고 있다. 이내 아픈 듯 허리를 움켜쥐는 현재. 이내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다시 아라베스크 1번이 올려퍼진다. 현재가 소리가 나는 방향을 응시한다. 그리고 이내 반장과 정육을 쳐다본다.

현재 P.O.V) 일하느라 바쁜 반장과 정육. 수평 자로 깔아놓은 마루의 수평을 확인하고 있다.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막내.

현재

(헛기침을 하며 작은 목소리로) 저기..

현재의 말을 듣지 못한 듯 바쁘게 대화하는 반장과 정욱.

현재

(전보다 조금 더 커진 목소리로) 저기... 저 화장실좀..

여전히 현재의 말을 듣지 못한 듯 대화를 이어가는 반장과 정욱. 이내 막내가 반장 정욱을 바라보다 현재를 바라본다.

막내

예? 뭐라고 하셨어요?

막내가 말을 하자 하던 일을 멈추고 현재를 바라보는 반장과 정욱.

반장

왜? 뭔일이야?

현재를 바라보는 반장과 정욱, 막내의 시선이 보인다. 세 사람의 표정이 냉소적으로 보인다. 순간 현재의 표정이 굳는다.

현재

아니... 그게...

불안한 듯한 표정을 하고있는 현재의 얼굴.

반장

(짜증을 내며) 뭐 임마! 빨리 말해!

현재

저.. 화장실좀...! 다녀오겠습니다..

현재가 불안을 겨우 떨쳐내고 말하듯 조금 크게 말한다.
고개를 갸우뚱하는 반장.

반장

허... 참나.. 난 또 뭐라고. 갔다와.

말이 끝나자 다시 일을 시작하는 반장과 동료들. 현재가 작업장 문을 나선다.

S#9 작업장 내부 (낮)

천천히 다시 창가 앞에 서는 현재. 창가 너머로 피아노를 치는 혜연을 바라보는 현재의 얼굴측면. 연주를 하며 빛나는 혜연의 모습이 보인다. 이내 연주를 멈추는 혜연.

좀더 클로즈) 창밖을 집중하는 현재.

혜연이 빠근한 듯 기지개를 편다. 이내 악보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 하는 혜연.

현재의 고개가 혜연을 따라 살짝 갸우뚱 한다. 악보를 쳐다보던 혜연이 이내 무언가 찾는 듯 주변을 두리번 거리기 시작한다.

급히 자세를 낮춰 숨는 현재. 이내 현재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다시 창밖을 응시하려 한다. 그때 뒷편에서 현재에게 말을 걸어오는 정욱.

정욱

(V.O) 야 뭐하냐

현재가 놀라서 뒤를 돈다.

창문 아래 자세를 낮추고 정욱을 응시하는 현재와 그런 현재를 응시하는 정욱의 투샷.

현재

어..? 아... 그게아니라...

정욱

넌 볼일을 거기다 보냐?

현재

미안.. 바로 들어갈게.

정욱

적당히 농땡이 피워라 ..

정욱이 밖으로 나간다.

정욱이 나가자 다시 창가를 바라보는 현재.

혜연이 보이지 않는다.

S#10 작업장 앞 (저녁)

일을 마친 듯 퇴근하는 동료들. 작업장 밖으로 현재와 반장 정욱 막내 순으로 나온다.

현재가 한켠에 서고 반장과 동료들이 반대편으로 향한다.

반장

고생했다.

정욱

오늘 어디로 가십니까? 막내 너 가고싶은곳 있냐?

막내

(머쓱한듯) 저야 뭐.. 하하

이내 정욱이 고개를 돌려 현재를 바라본다.

정욱

뭐야 넌 안가냐?

현재

아 내가 요 근처에 일이 있어서.. 오늘은 못갈거같은데..

반장

언제는 왔냐? 내버려둬라. 야 내일은 늦지말고 와라 알았어?

반장과 동료들이 떠난다. 이내 동료들 반대편으로 향하는 현재.

S#11 혜연의 집 앞 (저녁)

혜연의 집앞 골목. 현재 뒷모습 프레임 인.

현재가 조심스레 혜연의 창가를 바라본다.

불이 켜져있는 혜연의 창가. 창문은 열려있지만 혜연은 보이지 않는다. 창가로 보이는 불빛 사이로 사람이 있는 듯 조금씩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인다. 그리고 이내 꺼지는 불빛.

현재가 불빛이 꺼진걸 보고 조심스럽게 건물 가까이 다가간다.

이내 건물 현관에서 혜연이 나오자 급히 뒤돌아 걷는 현재. 혜연이 현재가 걷는 방향으로 걷는다.

이내 현재가 옆 골목으로 들어가고 혜연이 지나간다.

지나가는 혜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현재. 걸어가는 혜연이 보인다.

S#12 작업장/낮

작업장에서 반장과 이야기하고 있는 현재. 반장이 바쁘게 서류를 들고 장비 갯수를 파악하고 있고 현재가 말을 건다.

현재

반장님 그... 다름이 아니라 이번달 월급이 아직...

반장

(능청떨며) 어? 아 그러냐? 알았다. 다음주까지 입금해줄게.

현재

저번주에도 그러셨잖아요...

반장의 전화벨이 울린다.

반장

(살짝 귀찮은 듯) 이번달엔 내가 돈 쓸곳이 좀 많았어서. 너도 알다시피 지금 계약중인 건이 죄다
입금이 아직 안됐잖나. 좀만 기다려 줘라.

반장이 전화를 받으며 프레임 아웃.

S#13 작업장 내부 (낮)

다시 일을 하고있는 현재. 현재가 타일들을 내려놓다 손을 다친다. 검지 손가락에서 피가 나는 현재의 손. 그리고 아라베스크 1번이 울리지 않는다.

연주 소리가 나던 방향을 응시하는 현재. 현재가 다시 작업반장과 동료들에게로 시선을 옮긴다. 마루를 깔며 분주히 일하는 동료들의 모습.

Cut to

다시 창가 앞에 서는 현재. 혜연의 창가를 응시한다.

혜연이 보이지 않는다.

실망한 듯 돌아서는 현재.

Cut to

다시 작업장에서 일하는 현재. 현재가 마루바닥을 차례대로 갯수에 맞게 깔아놓고 있다. 일을 하

던도중 깔아놓은 마루바닥을 가만히 응시하는 현재.
일정한 간격으로 깔려있는 마루바닥이 보인다.
마루바닥을 가만히 응시하는 현재.
이내 현재가 건반을 바라보는 듯 손가락을 슬며시 올린다.

Cut to

환상) 공연장에서 피아노 건반에 손가락을 올리는 현재의 손. 현재의 손가락이 건반에 닿는다. 이내 건반을 누르는 현재.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온다.

반장(V.O) : 야 김현재! 김현재! 야마! 김현재!

Cut to

깔아놓은 마루바닥 위에 올려진 현재의 손가락.
현재 옆쪽에 반장이 서있다.

반장 : (냉소적으로) 너 뭐하냐...? 정신 안차려? 우리 밥먹고 올테니까 같이 안갈거면 저기 쓰레기 좀 버려놔라.

현재 : (정신을 차린듯) 네...? 아 네...알겠습니다.

반장과 정육 막내가 나간다.
현재의 시선 끝에 보이는 쓰레기 포대.

S#14 작업장 앞 (낮/꿈)

작업장 앞 가로등아래 쓰레기 봉투들이 보인다. 포대를 끌고 나오는 현재.
무거운 듯 힘겹게 포대를 나르더니 쓰레기 봉투들 앞에 포대를 내려놓는다. 내려놓은 포대를 짊어 채 거친 숨을 내쉬는 현재. 이내 현재 옆으로 누군가 쓰레기 봉투를 버린다. 고개를 들어 쳐다보는 현재.

혜연의 얼굴이 보인다. 혜연은 현재를 잠깐 바라보더니 이내 무심한 듯 고개를 돌려 돌아간다.
혜연을 바라보는 놀란 현재의 얼굴. 혜연이 조금 멀어져 가자 현재가 급하게 입을 떼는다.

현재

어... 그....저기!

뒤돌아 보는 혜연. 현재를 보더니 가우뚱 한다.

현재

아라베스크...

혜연

네?

현재

아라베스크.. 1번... 맞죠?

거리에 서있는 현재와 혜연 투샷.

S#15 거리 (낮/꿈)

거리를 걷는 혜연과 현재의 모습. 혜연이 먼저 걷고 현재가 조금 뒤에 걷는다.

혜연

관객이 있는줄은 몰랐네요.. 그냥 취미로 하는건데.

현재

아...막 이상한 의미에서 본건 아니구요.. 워낙... 저도 좋아하는 곡이라서.. 어쩌다 보니까...

혜연

괜찮아요. 피아노 전공이에요?

현재

아뇨.. 지금은 아니고.. 그나저나, 왜 오늘은 연주 안하셨어요?

혜연

아 제가 손가락을 다쳐서요. 어제 칼질 하다 베여가지구.

현재가 걸으며 손을 펼친다.

검지손가락에 상처가 보인다. 이내 검지손가락에 밴드가 붙여져 있는 혜연의 손이 보인다.

S#16 혜연의 집 앞 (낮/꿈)

혜연의 집 앞 골목. 걷고있는 현재와 혜연 투샷. 혜연이 집앞에 도착하자 멈춰선다.

혜연

그럼 피아노 이젠 안하세요?

현재

네?... 아아.. 네..

혜연

왜요?

현재

그... 사실은 제가.. 무대를 무서워해요.

혜연

아.. 그러시구나.

현재

네.. 아! 얘기하다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저 가볼게요.

현재가 돌아선다.

혜연

그.. 살짝 미친 소리처럼 들릴수도 있는데.. 피아노.. 한번 쳐보실래요?

현재

..네?

현재가 멈춰선다. 돌아선 채 당황하는 현재의 표정.

S#17 혜연의 집 안 (낮/꿈)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혜연. 혜연의 방에 현재의 방에 붙어있는 포스터와 피아노 관련 서적들, LP 판 들이 있다. 방문 앞에 서있는 현재.

혜연

들어오세요.

현재가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간다. 혜연의 방을 살펴보는 현재. 현재의 방에 있는 물품들과 포스터 등이 있다.

Cut to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현재. 건반을 쳐다본다. 그리고 악보를 쳐다보는 현재. 아라베스크 1번이라는 제목이 보인다.

현재

(어이없는 듯) 뭐가... 이상한데요.. 이래도 되는건지.

현재가 혜연을 바라본다.

말없이 우두커니 서있는 혜연.

현재가 잠시 응시하다. 혜연이 말이 없자 다시 고개를 돌려 건반을 바라본다.

이내 조심스럽게 건반을 누르며 연주를 시작하는 현재의 손. 아라베스크 1번이 울려퍼진다.

Cut to

~~다시 공연장에서 연주하는 현재. 객석에 혜연이 앉아있다.~~

Cut to

현재가 혜연의 방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다.

그때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현재. 현재가 건반에서 손을 뗀다. 현재가 건반에서 손을 뗐지만 피아노 소리가 계속해서 울려퍼진다. 놀라는 현재.

반장 (V.O) : 야! 김현재! 김현재!

S#18 작업장 (내부)

작업장 한켠에 누워있는 현재. 이내 반장의 호통에 눈을 뜬다. 현재의 눈앞에 보이는 쓰레기 포대.

반장 : 야! 뭐하냐 너? 아.. 새끼.. 쓰레기좀 버려놓으라니까.

벌떡 일어나는 현재. 어디선가 아라베스크 1번의 연주소리가 울려퍼진다. 현재가 살짝 가쁜 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군다.

S#19 작업장 앞 (낮)

다시 포대를 버리러 나온 현재. 힘겨운 듯 포대를 끌고 나온다. 아라베스크 1번이 계속해서 올려 퍼진다. 포대를 가로등 아래 내려놓고 숨을 고르는 현재.

그때 누군가 현재 옆으로 쓰레기를 툭 던지고 간다. 고개를 들어 확인하는 현재.

혜연의 모습이 보인다. 현재를 발견하곤 이내 눈을 돌려 돌아가는 혜연. 놀란 현재의 표정.

혜연이 떠나려하자 현재가 혜연을 보며 말한다.

현재 : 아.. 아라베스크 1번... 맞죠?